

CEO, 끝이 좋아야 한다(2)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CEO의 은퇴나 그 자리의 이양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CEO란 위치가 무릇 영욕(榮辱)의 정상(頂上)에 있기 때문이다. 제왕의 죽음 역시 긴장감도는 역사적 이벤트다.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대왕이 33세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되었다. 측근이 두려워 떨며 아뢰었다.

"폐하! 후계자는 누구로 하오리까?" 대왕이 가까스로 대답했다.

"가장 지혜롭고 강한 자로다."

그는 20세의 젊은 나이로 BC336년 마케도니아의 왕위에 올랐다. 그런 후 재위 13년만에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이르는 대제국 건설에 성공했다. 그의 문화사적 업적은 대제국에 그리스문화와 오리엔트문화를 융합시킨 새로운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한 데 있다.

반면에 중국을 61년이나 다스린 최장수군주였던 청나라 강희제의 경우는 어떤가? 강희제는 죽어가면서도 신하의 손바닥에 사력을 다해 十四를 붓으로 적어주었다. 24명의 아들 중 열네번째를 후계자로 점찍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넷째 아들에게 매수된 신하가 十자를 혀로 핏자 지워 버렸다. 후계자와 나라는 편할 날이 없었다. 그래서 위대한 알렉산더대왕의 마지막 대답이 종소리 울림처럼 큰 여운이 있어 음미해보고 싶다. 영원한 은퇴, 영원한 자리이양일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서도 더욱 위대했기 때문이다.

최강자를 후임자로

첫째, 곰곰이 생각해보면 유언은 무용지물이다. 제왕의 자리는 물질처럼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유일한 권력이다. 어차피 역사는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자의 편이다. CEO의 이양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떠나는 CEO는 새로운 CEO등장에 순리에 어긋나고 어쭙잖은 영향력 행사를 가해서는

안된다. 참다운 리더는 육성되고 점찍거나해서 세습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한 기회의 훈련과 업적을 통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후계자를 점찍어 키웠다는 착각을 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둘째,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후계자란 없다. 후임자가 있을 뿐이다. 후계자란 말 속에는 전임자 입장에서 그의 생각과 취향을 따라주기 바라는 어리석은 욕심이 묻어있다. 그러나 세상이 어디 그럴 수 있는가. 떠나는 리더는 자기 시대의 마침표만 잘 찍으면 된다.

'知止常止 終身無恥(지지상지 종신무치) 끝낼 바를 알아 마땅히 잘 마무리하면 평생 부끄럼을 당하지 않는다.'

명심보감의 가르침이다.

퇴계는 늙어 병들자 머무르던 여러 제자들은 돌려보냈다. 미리 철저히 떠날 준비를 마쳤다.

은퇴는 또 다른 시작

셋째, 은퇴나 자리를 넘겨주는 일은 열성을 바쳐 해왔던 일의 끝이다. 하지만 그 끝은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어야 한다. 영원한 은퇴인 죽음조차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한다고 믿는 것이 영적 존재인 인간의 참 모습이다. 어느 대기업의 명예회장은 취미생활인 그림을 즐긴다. 그리고 간간이 개인전도 열어 매스컴의 기사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협력회사 등 관계지인들이 그림을 사주어야하는 부담과 압력을 느끼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전시된 아마추어 그림이 이권 거래나 아침의 빌미 등으로 잘못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은 은퇴이후를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꽃피웠다. '실패한 대통령'이란 평가가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직 대통령'으로 거듭난 정치가가 되었다. 대부분 미국 전직 대통령들은 골프장에서 소일하거나 돈벌이 강연에 나서곤 한다. 그러나 카터는 전 세계를 돌며 평화중재, 빈곤과 질병퇴치에 힘을 쏟았다. 은퇴 이후가 멋지고 아름다운 CEO들이 이 땅에 넘치기를 기대한다.